

누리에 떨치는 조선의 국위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위대한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겨워 천만인민 누구나가 숭엄히 부르는 장중한 우리 국가의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리.

민주의 새 나라를 제손으로 일떠세우는 무한한 격정으로 가슴끓이며 공화국의 첫 세대 인민들은 세계가 우러르는 강대하고 부강번영할 조선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터치였다.

그때로부터 세기와 세기를 이어 75년의 세월이 흘렀다.

형언할수 없는 온갖 역경과 시련이 겹쳐든 그 장구한 기간 우리 조국과 인민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며,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엄혹한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며 민족사에 특기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를 긍지높이 수놓아왔다.

하다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는 과연 무엇으로 일관되였으며 무엇으로 그렇듯 위대한것인가.

자주, 자립, 자위 그리고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과 로선을 불변진로로 삼고 국가특유의 일심단결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부흥하고 자위로 굳건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움으로써 세세년년 이 행성에서 남다른 존엄과 국위를 떨쳐온 우리 공화국이다.

주체의 나라, 영웅의 나라, 천리마조선, 자주의 성새,

사회주의락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일심단결의 나라…

조국청사에 빛나게 새겨진 이 부름들에는 각이한 년대와 시대들마다에 떨쳐온 우리 조국의 자랑찬 위용과 기상이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자기 력사의 가장 위대한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국위를 떨쳐가며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힘차게 펼쳐나가는 강대한 나라, 사회주의조선!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한 지난 10여년간에 그것도 미증유의 국난을 이겨내며 우리 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누구도 넘볼수 없는 나라, 그 무엇도 다스릴수 있는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것이야말로 반만년민족사에 더없을 최대의 긍지이고 자랑이다.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들을 훌륭히 해결한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이다.

바로 이것이 만고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사상초유의 도전을 맞받아 사상최대의 비약상승으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력, 국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창건 75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나라

민심의 토로이다.

절세위인의 걸출한 령도가 있고 오직 그이만을 충성다해 받드는 천만인민의 일편단심이 있어 주체조선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국가로,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자기의 존엄과 국위를 더욱 높이, 더욱 찬란하게 떨쳐갈것이다.

1. 자주의 성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치고 국위를 떨치려는 열망은 한결같다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나라들마다 자기의 국가적위상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여기서 명백히 알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방대한 령토나 억대의 재부를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그 아무리 강대하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한 나라의 국위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징표로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하다면 진정한 국위는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주에 있다.

력사의 정의이고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인 자주.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게 된다.

하기에 자주를 가리켜 인간이 자신을 깨닫게 하는 운명의 홰불이고 위대한 강국, 위대한 인민을 낳는 창조와 변혁의 대명사라고 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주를 생명선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창조와 건설을 자기식으로 전진

시켜나감으로써 자주의 성새, 자주강국으로 누리에 떨치는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야말로 주체조선특유의 절대적인 권위이고 제일가는 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주야말로 세상이 공인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문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적인 정치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혁명의 근본원칙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있게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게 한다.》

자주, 자존으로 창건의 터전을 닦은 공화국의 력사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남에게 의거하는 생존방식, 남의 식, 남의 힘에 의한 발전방식이 아닌 자기식, 자기 힘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자주의 력사이다.

아시아의 극동에 자리잡은 우리 나라의 위치는 그 전략적의의가 대단히 크다. 우리 나라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사이의 접경지대로서 해양과 대륙을 련결하는 《륙교》 즉 《대륙에로의 건늠다리》로 되는 특수한 지리적위치에 놓여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리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항시적인 침략과 간섭을 받아야 했고 힘이 약했던탓에 빼저린 수난과 치욕을 감수해야 했던 조선이였다.

사대를 숙명으로 여긴 결과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

를 통채로 빼앗기고 민족의 말과 글, 조선사람으로서의 성과 이름마저 보존할수 없었던 수난의 력사를 감수해야 했다.

상가집 개만도 못한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한이 구천에 사무쳤던 그 시기 《아! 조선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굳세지를 못하였더냐.》라고 절규하며 우리 민족 누구나 꿈에도 갈망한것은 강대한 자주독립국가였다.

조선민족의 머리우에 짙게 드리웠던 망국의 비운을 가셔주고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워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혔다. 자주를 혁명의 원리로 정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민족의 리익,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세워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주의 력사였다.

조선에서의 해방을 앞두고 제국주의자들은 오만하게도 조선민족이 국가관리능력이 없기때문에 이른바 후견통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을 모독해나섰다. 미국은 1943년에 있은 테헤란회담에서 《조선인민이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후견기간을 필요

로 한다.》고 떠벌였으며 그후 얄따회담에서도 조선의 경우 적어도 20～30년간의 후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일부 나라 사람들은 조선이 남의 도움이 없이 국가를 수립할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저었다. 조선사람이 과연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국가를 일떠세울 힘이 있겠는가 하는것이 갓 해방된 우리 나라를 보며 세계가 안고있던 우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출발선에서 우리 인민의 근본리익,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인 독립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직후인 주체34(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승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자주독립국가의 현실적담보인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우리자신의 힘으로 지체없이 실현할데 대한 당면임무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은 조선문제해결의 주인은 조선인민자신이며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것으로서 조선에 대한 렬강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꺾어버리고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영원히 부강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철저한 자주로선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전 쏘련의 이름있는 당 및 국가활동가였던 쥬다노브를 만나 담화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쥬다노브는 위대한 수령님께 해방후 쏘련이 조선에 어떤 지원을 줄수 있겠는가고 문의하였다. 이 질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페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확고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쏘련사람들은 그때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었다.

자주, 자력!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이 교시는 우리 공화국의 력사가 어떤 신념과 의지에 받들려 시작되였는가를 깊이 새겨안게 하고있다.

당건설도, 정권건설도, 무력건설도 철두철미 자체의 힘으로 해낼데 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건국로선은 인민들모두가 새 사회건설의 주인이라는 비상한 자각과 높은 긍지를 안고 새 조국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서게 하였다.

국가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문제가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로선과 정책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시였고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내세우시였다.

토지개혁법령과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에 내놓으신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다 철저한 자주성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새 조국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의 지도사상과 로선, 국호와 국기, 국장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우리 식으로 일관된 자주적인 국가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자주사상과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자주적신념과 의지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새 출발을 알리는 궁지높은 선언이였다.

건국의 첫걸음을 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웠기에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가렬처절한 전쟁에서 자기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고 대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강권을 물리치며 자주독립국가,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빛나는 로정을 수놓아올수 있었다.

이 땅우에 자주의 거세찬 흐름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민을 그 누구보다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으로, 내 조국을 자주의 성새로 위용떨치는 강대한 나라로 빛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고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압력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초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라는 비극적사태가 조성된데 이어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붕괴시켜보려고 혈안이 되여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의 압살광풍이 극도에 달했던 준엄했던 고난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오로지 수령님식대로 자주의 길을 꿋꿋이 헤쳐가시였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력사의 선언과 함께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드놀지 않는 신념과 배짱으로 사회주의로선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시는 그이의 투철한 자주정치가 있어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붉은기가 더욱 힘있게 휘날릴수 있었다.

국가와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리익, 후손만대의 행복은 곧 강력한 힘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변의 지론이였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사면팔방에서 덤벼드는 제국주의떼무리들을 선군의 보검으로 여지없이 쳐갈기시며 사생결단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의 세기적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막강한 위력은 새 세기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비상히 올려세웠다.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양보나 타협을 모르는 조선의 초강경대응에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세계의 면전에서 매번 패배의 치욕을 당해야만 했고 적대국의 집권자들이 평양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지난날 공화국을 경계하며 등을 돌려대고있던 서방나라들까지도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력사에 류례없는 준엄한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며 우리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강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자주의 성새로 그 존엄을 떨쳐온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에서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자주정치의 구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년대로 각광을 받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투쟁의 기본주제는 자주냐 예속이냐 하는것이다.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면 예속의 길을 걸어야 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나날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부터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도전으로 하여 말그대로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의 련속이였다.

피눈물의 12월 민족의 대국상이후 적대세력들은 때를 만난듯이 《급변사태》와 《조기붕괴》를 운운하며

사면팔방으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접어들었다.

진로변경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궤변을 하는가 하면 명줄과도 같은 자위권을 포기하면 《번영》을 선사하겠다는 침발린 유혹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자주의 궤도에서 탈선시켜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공화국은 무엇으로 대답하였던가.

지금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것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메아리쳐온다.

자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혁명의 좌표이고 기본주로이다. 력사의 분수령에서 자주,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옳바른 선택이였으며 필연적귀결이였다.

그후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가증되는 위협과 도전에도 굴함없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에서 한치의 탈선이나 주춤을 모르고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을 억척으로 수호하며 승승장구해가는 자주강국의 위용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정치군사적,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확대강화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앞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에서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제시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는데 대해 다시금 확언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자주로선의 한길따라 우리 인민은 최악의 조건과 시련속에서도 남들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그 나날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 근본리익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허용치 않고 과감한 투쟁으로 자기의 존엄을 꿋꿋이 지켜낸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에 세인들이 얼마나 놀라와했던가.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며 정치, 군사적압력을 가해오는 미제

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기어린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린 조선의 련속적인 초강경대응으로 세계가 들끓었던 2013년의 치렬한 대결전이 그러했다.

전대미문의 《제재결의》책동과 함께 《평양진격작전》과 같은 망발을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적대세력들이 실전을 가상한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며 날뛰던 2016년의 그 준엄했던 시기 조선의 담력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준 려명거리건설선포의 충격.

우리 국가앞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엄혹한 격난이 련이어 들이닥쳤던 2022년에 침체에 빠지거나 좌절되지 않고 억세게 버티여낼뿐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공화국이 제국주의의 폭제를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자기의 발전목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는 강위력하고 엄연한 실체라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준 경이적인 성과.

지나온 10여년간에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쥔 강국의 존엄과 위용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준 경이적사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는가.

2022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자주와 정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 우리 공화국이 시대와 력사앞에 걸머진 중대한 사명에 맞게 보다 과감한 투쟁과 전진, 더 큰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투쟁방략들이 명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성된 현 국면과 정세발전추이, 나라의 구체적실정, 발전잠재력과 토대에 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화국정부

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우리 국가특유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회의를 계기로 자주적대를 철저히 세우고 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그 전진력을 억세게 배가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리상성취를 위해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과 불패의 위용이 다시금 뚜렷이 과시되였다.

참으로 자주로선의 일관한 고수와 구현으로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주체조선의 힘찬 진군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날 자주강국의 존엄과 국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출중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해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힘을 비축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세계적판도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데서 보다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전략적지위와 당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세계정치의 한복판에 서서 시대의 흐름을 정의에로 주도하는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강국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다.

자주적대가 강한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제 할 소리를 다하며 결심한 일을 끝까지 내미는 나라이다.

세계에는 200여개를 헤아리는 나라들이 있어도 공화국처럼 국제사회에서 무시할수 없는 발언권을 가진 나라, 폭제와 강권의 괴수인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진정한 강국,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조금도 굴함없이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나가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렬강중심의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고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옹호자, 평화의 수호자로서 자주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정치는 진보적인류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외국의 한 언론이 《오늘 국제사회에는 온갖 불의를 짓눌러놓으며 행성을 자주의 궤도를 따라 드팀없이 인도해가는 조선을 축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도가 형성되고있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이 법화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 있다.

국가핵무력정책의 법화.

이는 자주적인 우리 공화국만이 내릴수 있는 담대한 정치적결단이다.

자주와 자존, 인민의 운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그에 위해로 되는 적대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한다

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우리 공화국이기에 국가핵무력정책의 법화라는 력사적장거를 안아올수 있었다.

하기에 세계의 각계 인사들과 수많은 인터네트홈페지가입자들도 《평화를 위하여,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여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조선이 으뜸이다.》, 《지배주의,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들은 조선을 따라 배워야 할것이다.》라고 찬양하였다.

패권주의가 더욱 살판치는 오늘날 진정한 자주강국, 정의로운 국가란 어떤 나라이며 악의 제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인 기상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 세계는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였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그 지위에서의 극적인 변화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우리 인민의 배짱은 담대해졌고 조선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그 위용과 국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떨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자주정치가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자주강국의 존엄과 국위는 곧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인것이다.

세인의 고백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기마련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년간 경애하는 원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선망하는 지도자선정의 첫자리에 정중히 모시였다.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세계

의 태양은 **김정은**령도자》, 《위대하고 훌륭한 령도자》…
모든 지면과 화면들, 행성의 시공간을 가득 채우며 해가 바뀔수록 더 격양되는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의 목소리 하나하나에는 인류의 지성과 행성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있는것이다.

공화국에서 거대한 사변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가 조선에 관심과 초점을 모으고 세계언론이 우리 조국에 대해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높으신 권위야말로 주체조선의 국위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정녕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과 방해를 물리치며 세계정치무대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잡은 나라, 후손만대의 번영과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는 자주의 성새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존엄과 국위를 만방에 떨칠수 있는것이다.

자주, 이는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어제와 오늘, 아름다운 래일이며 빛나는 상징이다.

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공산주의리상사회를 향한 과감한 진군길에서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국위를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2. 자립, 자력의 부흥강국

력사의 모진 광풍을 맞받아 뚫고헤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해온 우리 공화국은 력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국가발전의 새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드높이 자립경제의 막강한 위력으로 온갖 제재와 봉쇄의 도전과 역경을 짓부시며 자력부강의 불변침로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당당한 모습에서 세계는 강국의 진모습을 새겨안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활력있게 전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이며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경제에서의 자립을 실현한 나라만이 든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막강한 경제력을 갖출수 있는것이다.

주체조선의 발전사는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힘을 믿고 제

힘으로 강해지고 전진해온 자립, 자력의 자랑스러운 력사이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빈터우에서 시작된 자립의 초행길이였다.

건국의 첫삽을 박던 그때 나라의 경제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한 기형성과 편파성을 띠고있었으며 그나마도 일제가 패망하면서 거의 모두 파괴해버렸다. 성냥공장 하나 변변한것이 없고 자금도 자재도 기술인재도 모든것이 부족한 령이하의 상태, 너무나 뒤떨어진 세기적락후와 빈궁밖에 없는 말그대로 빈터나 같았다.

나라의 완전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이 땅우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온갖 경제적예속과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고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이였다.

령이나 다름없는 건국의 초행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걷고걸으신 헌신의 자욱을 따라 조선사람의 힘으로는 돌릴수 없다던 공장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이 땅우에서는

자립경제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였다.

새 조국건설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며 방금 일떠서기 시작한 이 땅의 모든것이 무참히 파괴되고 페허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 조선이 과연 어떻게 일어설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리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면한 복구건설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건,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타산하시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여 우리 경제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자체로 걸어나가는 자립경제건설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는가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전후에 수정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우리 나라도 국제분업과 통합경제건설을 제창하는 쎄브에 들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내리먹이려고 이모저모로 압력을 가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한테 기계설비를 팔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쇠돌을 팔면 나중에 우리에게 남는것은 빈 굴밖에 없을것이다, 우리가 자체로 기계설비를 생산하여 당신들에게 팔아먹을수 있게 될때에 쎄브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대로 경제건설을 다그치려는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어이 제힘으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자립경제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아직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로역경을 헤쳐나가시며 이 땅우에 조국을 떠받드는 만년초석으로 될수 있는 수많은 중공업기지들과 경공업기지들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한 사회주의국가로 되였다.

전후의 페허우에서 우리의 힘으로 첫 기중기, 《천리마》호굴착기, 《천리마》호뜨락또르, 《승리-58》형화물자동차, 《붉은별-58》형불도젤을 비롯한 공업화의 실체들을 만들어낸것이 여간만 놀랍지 않아 남녀로소가 달려나와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우리 인민은 잊지 않고있다.

금속, 화학, 채취, 기계를 비롯하여 자체의 원료와 자원과 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은 나날이 더욱 힘있게 발휘되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이 창설된것을 비롯하여 1만t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와 같은 현대적인 기계들을 척척 만들어내여 주체공업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였으며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서해갑문을 건설함으로써 자립경제의 막강한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굳건한 토대가 있었기에 지난 세기 70년대, 80년대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파동으로 많

은 나라들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에도 공화국은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지난날 국제분업에 들었던 사회주의나라들은 경제건설에서 자립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리고 궁극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도 지켜내지 못했다. 이것은 20세기의 가슴아픈 교훈으로 되고있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 그로 인해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데다가 때를 만난듯이 책동하는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압살봉쇄가 가증되던 1990년대의 고난의 시기에도 사회주의자립경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기의 경제구조를 고수하며 발전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아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그 어떤 외자도입이나 남의 지원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자립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우리식 경제구조를 고수하기 위한 기본목표, 전술과 묘술을 밝혀주시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우리의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높은 발전단계에로 올라설수 있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CNC공작기계가 태여나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지펴지고 성장의 봉화가 타

오른 력사의 고장에서는 주체철쇠물이 쏟아지였다.

라남의 기계제작기지에서는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새로운 기계들을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되였고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는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식의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워 강철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주체비료, 주체비날론경사를 안아왔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자립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며 세계는 진정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이 땅에서 놀라운 성과들과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던 그 시기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수백년간의 발전력사와 경제장성을 자랑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아우성을 치고있던 그때 어느한 나라의 통신은 이 무시무시한 동란속에서도 태연하게 있는것은 사회주의조선뿐이라는 글을 내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립경제에 대한 세계의 인정과 평가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자기의 성격과 본태를 추호도 잃지 않고 경제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자립, 자력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이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세상이 보란듯이 하루빨리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압도하는 부흥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10여년간은 공화국의 행로에서 겪어온 무수한 고난과 애로가 다시 재현되고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도전들이 겹쳐든 시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이고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며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자립경제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자립의 신념을 반석같이 다져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회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이라는것을 재천명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주의 길, 자력갱생의 길뿐이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각인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가슴마다에 그 어떤 곡경에도 굴할줄 모르는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시고 자력자강의 힘과 슬기를 키워주시였다.

주체105(2016)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

계설비들이 전시된 전시장을 찾으시였다.

전시장에는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115hp디젤기관을 리용한 5t급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전력, 석탄, 전자공업과 철도운수, 륙해운수부문, 농업과 국토환경부문 등 인민경제 많은 부문들에서 마련한 수많은 기계설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된 기계설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정말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뜨락또르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에는 적대세력들의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짓뭉개고 경제강국의 지름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이 응축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투쟁방식, 생활방식, 발전방식을 더욱 높이 체득하였다.

우리 인민은 어렵고 힘들수록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더욱 분발하여 당당히 우리의것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귀중한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있다.

자력갱생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땅속에서는 우리 지하전동차가, 땅우에서는 우리 자동차와 뜨락또

르, 우리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내달리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경비행기들이 날아예는 환희로운 현실, 황금해, 황금산, 황금벌의 새 전설속에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차넘치고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으로부터 《은하수》, 《봄향기》, 《매봉산》, 《철쭉》, 《대성산》, 《금컵》을 비롯하여 우리것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그 모든것들은 절세위인의 손길에서 시작되여 인민의 생활속에 자기의 령역을 부단히 넓히며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힘이 솟게 하는 자력자강의 고귀한 결정체들이다.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은 국가와 인민의 존립과 사활이 걸린 운명적인 중대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실태를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 2대부문인 공업과 농업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 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배하기 위한 위대한 실천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우리 당이 제시한 정비보강전략은 현실적조건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밝힌 과학적인 경제전략이다. 지금 당이 제시한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것과 함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현존경제토대에 기초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생산능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건설하는 등

공업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대상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최근년간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이 엄혹한 속에서도 전국의 지방공업을 새롭게 도약시킬수 있는 본보기가 마련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귀중한 토대가 구축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김화군에서 그 기준을 창조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불면불휴의 령도와 인민사랑의 고귀한 뜻에 떠받들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열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의 모든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표준,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리고있다.

2022년 제1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전시대앞을 쉬이 떠나지 못하며 끓어오르는 격정을 한껏 터치였다.

《정말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만든 제품이 옳습니까? 100% 군자체의 원료에 기초한것이라고 하는데 자그마한 산골군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김화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이 현대적으로 일떠선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이 컸는데 오늘 이렇게 중앙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질좋은 제품들을 보니 우리 당의 지방공업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을 더욱 가슴뿌듯이 느끼게 됩니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이곳 산골군에 펼쳐진 사회주의선경을 놀라움과 경탄속에 바라보며 온 나라 인민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속에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있음을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현시기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치는것은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농촌진흥이자 자립경제의 강화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시대 농촌건설강령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는 농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투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열어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력으로 부흥하는 사회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투쟁지침이다.

새시대 농촌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일신되고있으며 농업생산력을 장성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여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

고있다.

정비보강전략과 농촌건설강령이 빛나게 실현되면 공화국의 자립경제는 그 거대한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될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기본동력으로 자립의 반석을 굳건히 다지고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경제적자립은 곧 과학기술의 자립이다. 오늘날 우리의 자립경제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강국을 떠받드는 굳건한 반석이 되는가 못되는가도 인재와 과학기술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는 사상을 제시하시고 당과 국가가 인재와 과학기술을 주되는 전략적자원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국풍으로 확립하고 인재를 널리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실용적이며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제도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인재중시, 과학중시로 일관된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은 자립경제가 그 어떤 외부적요인에도 끄떡없이 지

속적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비약과 혁신의 결정적 요인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의 과학기술력량,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닌 높은 실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언제인가 권위있는 어느한 국제기구의 성원이 기자들에게 《공화국의 기술자들은 대단히 제한된 자원으로 시행하는 능력이 특히 뛰여나다. 내가 만약 무인도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고를수 있다면 나는 조선의 기술자를 택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에 대한 하나의 례증으로 된다.

인재를 중시하며 과학기술로 경제전반을 견인해나갈데 대한 로선과 정책은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경제사업전반이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 속에 현존경제토대가 보다 강화되고 핵심적인 첨단기술들이 적극 개발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그 지위를 세계의 전렬에 올려세우기 위한 력사적대업실현에서 이룩된 기적적승리들과 변혁적성과들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재중시, 과학중시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변천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의 발전방향과 비약의 해법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공화국은 자력부흥,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강국건설의 목표를 향해 전진의 더 큰 보폭을 내짚게 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불과 몇해사이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릴수 있었다.

주체철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금속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 다종다양한 인민소비품들을 쾅쾅 생산해내는 경공업부문의 공장들…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길에서 거둔 모든 성과들은 진정 우리 조국의 굳건한 자립경제의 위력이 낳은 고귀한 열매들이다.

이 땅우에 해마다 키돋움하며 솟구쳐오른 인민의 리상거리들,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같은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수없이 일떠서는것과 같이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희한한 현실도 자립경제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올해에도 자립, 자강의 생활력은 전례없는 혁신적 성과들을 이루어내며 강국의 위상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

의 12개 중요고지를 명시하시고 그 수행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지금 경제건설의 전구마다에서는 혁혁한 성과와 변혁적실체들을 련이어 떠올리고있다.

지난 7월초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전한바와 같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속에 주요부문들에서 상반년계획을 초과완수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령도를 받들고 12개 중요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선 우리 인민들의 힘찬 투쟁으로 사회주의전야가 부글부글 끓는 속에 전반적인 관개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돌파구가 열리고 올곡식농사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으며 경제발전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은 물론 전력, 석탄, 기계를 비롯하여 기간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나날이 어렵고 불리해지는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자립의 정신, 자력의 창조본때로 전면적부흥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철석의 의지와 비상한 각오, 투쟁정신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참으로 엄혹한 형세속에서도 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렇듯 놀라운 성과들은 자력으로 건설하고 튼튼히 다져온 자립경제야말로 위대한 우리 국가를 떠받드는 반석이며 자립의 길에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확고한 승리가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성전염병사태가 몇해째 계속되고 엘리뇨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재해가 해가 갈수록 증대되는 속에 전 세계가 사상류례없는 경제위기에 허덕이고있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말할것도 없고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조차 국제원자재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한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발적인 인플레률의 상승, 연료와 식량을 비롯하여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 기업파산으로 인한 실업위기로 경제와 민생이 여지없이 파탄되고있다.

이러한 현실들은 세계를 휩쓰는 파국적인 동란에도 끄떡없이 자립, 자력의 무궁한 힘으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강국이라는것을 뚜렷이 반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어느한 외신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영원히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담보할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충만된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의 전진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조선이야말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앞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경제체로 될수 있다.》

자립의 반석을 더욱 억척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자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의 막강한 위용과 국위를 만방에 떨칠 주체조선의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다.

3. 자위의 군사강국

주체112(2023)년 2월 8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2월의 밤하늘가를 진감하는 만세의 함성드높이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벼간 멋스럽고 호기찬 열병종대들과 지축을 울리며 노도쳐간 강위력한 주체무기들의 웅건장중한 철의 흐름…

사상초유의 특대사변으로 온 지구천지를 진감했던 2022년 4월의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충격을 초월하여 강렬하게 분출하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용에 세계는 또다시 놀랐다.

75년강군사의 축도와 같은 2월의 열병식은 최정예혁명강군의 위엄과 더불어 미증유의 군사적강세로 날로 강대해지고있는 공화국의 불패의 군력이 올라선 높이를 다시금 세계앞에 남김없이 과시한 력사적계기였다.

령토도 크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행성의 모든 악과 불의의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수 있는 자위의 절대적힘을 비축한 군사강국으로 그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인민모두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금할수 없어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군력이자 국력이고 국권이며 국위이다.

이것은 힘의 론리가 지배해온 인류사가 새겨줄뿐 아니라 제국주의렬강들의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가 여실히 확증해주고있는 진리이다.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군력강화의 한길만을 매진해온 공화국의 력사는 존엄과 명예도 강자에게만 있고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자립도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있다.

되돌아보면 지난 세기초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는 무능한 봉건사대부들로 인해 국권을 지킬만한 온전한 정규무력도, 변변한 무장장비도 없는 약소국가로 대국들의 흥정의 칼도마우에 올라 망국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여 이 땅우에 자위로 위용떨치는 자랑찬 력사를 아로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육성된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혁명군대를 건설하시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추억속에 깊이 새겨진 잊지 못할 75년전 2월의 열병식광경이 생생히 떠오른다.

총창을 비껴든 병사들의 억센 모습, 허연 입김을 날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열병대오…

이들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세계《최강》을 떠들던 미제침략자들을 괴멸시켰다.

자체의 국방공업을 떠나서 자위적국방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그 어떤 국력도 론할수 없다.

해방후 국방공업의 토대도 없고 중공업의 기초도 미약하였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병기공업을 창설하실 의지를 안으시고 자위적국방공업창설의 첫 페지를 써나가시였다.

주체34(1945)년 10월초 어느날 평천벌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초가 무성한 험한 길을 걸으시며 주체적인 병기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민주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병기공장을 창설하는 사업은 순간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자체의 병기공업창설.

그때로 말하면 해방이 된지 40여일밖에 되지 않

던 때였다. 아직은 당도 정권도 태여나지 않은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있던 때였다. 바로 그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할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것이였다.

새 조국건설의 나날 빈터우에서 창설된 우리의 병기공업의 력사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기관단총과 박격포, 포탄과 수류탄, 지뢰 등 여러가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꽝꽝 만들어낸 군자리병기공장의 자랑찬 력사로 이어졌으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의 발전에로 끝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으시여 우리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전변시켜놓으시였다.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는 현대전의 요구와 륙지면적의 종심이 그리 깊지 않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근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불패의 국가방위체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과 구상에 따라 1959년에 로농적위대가(당시), 1970년에는 붉은청년근위대가 조직되였으며 민방위무력의 합리적인 조직구성과 지휘체계가 마련되고 훈련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였다. 이렇듯 전민무장화의 실현으로 전인민적무장력이 태여났으며 전체 인민이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 전인민적자위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가 힘차게 나래치는 속에 우리 조국은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무적의 성새로 솟아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였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한 나라의 군사대표단은 전민무장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나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엄지손가락을 내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또 어느한 나라의 고위군사대표단은 《이때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이 나라처럼 전민이 무장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는 나라는 보지 못하였다. 조선은 틀림없이 군사대국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온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군사력의 위력은 미제가 일으킨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때 뚜렷이 과시되였다.

그때 미제는 까리브해위기때와는 대비도 안되는 방대한 무력을 우리 나라에 끌고왔지만 공화국의 결사항전의지와 무적필승의 자위적인 국방력에 질겁하여 끝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강력한 자위의 군사력이 있어 우리 공화국은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제의 전쟁도발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짓부시면서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나선 미제가 사회주의보루인 공화국을 최종목표로 정하고 파렴치한 《핵소동》으로 전대미문의 압살공세와 봉쇄책

동에 광분하던 엄혹한 그 시절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백배로 다져 조미대결전의 련전련승을 안아오고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을 지켜낸 선군의 그 위력은 지금도 세기의 기적으로 세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처한 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이 조용히 불러만 봐도 눈굽적시는 쪽잠과 줴기밥에 대한 이야기며 철령과 오성산, 판문점과 초도에 대한 현지시찰의 이야기들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이어가신 군력강화의 길이 있어 전군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전례없는 훈련열풍이 일어나 우리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사탕알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불굴의 의지로 군력강화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은 고도로 현대화되여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장성강화된 불패의 군력으로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유감없이 떨

쳐올수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은 사상최대의 험로역경을 이겨내며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아래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오늘날 강력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은 그 누구도 넘볼수도, 견줄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불가역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험난한 길을 이어 마침내 그 존엄과 위용이 누리를 진감하는 자주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더 높이 올라선 한없는 감격속에서 천만인민은 위대한 자위의 사상과 로선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국방에서의 자위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국위는 무엇보다도 령장의 슬하에서 무적의 총대로 위용떨치는 최정예혁명강군인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에서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75년전 보병총을 비껴들고 열병광장을 행진한 우리 군대, 군마를 메운 마차에 무기를 싣고나갔던 청소한 인민군대가 오늘은 우리 국가를 세계최강의 전렬로 억세게 떠받치는 무진막강한 국력의 실체로 장성강화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고 조국과 인민앞에 더없이 성실한 불패의 사상강군.

이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조선인민군특유의 진모습이고 절대적힘의 상징이다.

강군의 승패여부는 첫째도 둘째도 사상무장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군대는 장탄되지 않은 총과 같기때문이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더 높이 올라선 강군건설의 비상한 경지이다.

혁명적사상과 도덕적완성은 우리 군대의 생명이며 혁명군대는 적을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승해야 한다는 철의 의지로 지난 10여년세월 사상으로 이기고 도덕으로 강한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을 키우시기 위해 천만자루의 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군풍으로 확립한 정치사상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당중앙을 무장으로 옹위하는것을 본령으로, 사상정신력의 근본핵으로 간주한 인민군대이기에 사회주의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혁명무력은 원수님의 령도만을 받든다는 신념의 웨침을 제일먼저 터치였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들이 《참수작전》, 《평양점령》, 《완전괴멸》을 떠들며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망동을 부릴 때에도 인민군군인들은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총대마다에 재우며 억척의 성벽을 맨 앞장에서 쌓았다.

그 누구보다도 절세위인에 대한 절대적이고 깨끗한 신뢰심을 지닌 집단이 우리 인민군대인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였던 경축의 열병광장들에서 인민군장병들이 최고사령관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치며 하나와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그 화폭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에 대한 충실성을 투철한 신념으로,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주한 수령의 군대만이 보여줄수 있는 충실성의 정화이다.

《당신이 진짜로 본것이 무엇인가고 물을수 있다. 나는 철의 흐름보다 더 무서운 정신의 흐름을 보았다고 대답할수 있다.》

언제인가 우리의 열병식행사를 직접 체험한 외국의 한 군사가의 말을 통해서도 누구도 따를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똑똑히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남다른 사상정신적특질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제일 잘 알고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집행해나가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에서도, 자기의 이름에 지닌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명줄로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피와 땀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가는 도덕적우월성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정녕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인민군대는 사상과 도덕의 최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으며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도저히 산출해낼수 없는 공화국무장력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최강의 군사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 민족만대의 번영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불

패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인민군대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전군에 전례없는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 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조국수호의 신념과 투철한 주적관, 멸적의 의지를 만장약한 강철의 대오로서 우리 인민군대는 걸음걸음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해치려는 적들의 책동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을 모르고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였다.

하늘과 땅, 바다, 우주의 그 어느 공간에서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능히 대응할수 있는 군사적강세를 확고히 틀어쥐고 부단히 고조시켜나가고있는 인민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있으며 원쑤들에게 무서운 전률을 안겨주고있다.

세계를 경탄시킨 경이적인 열병식들이 실증했듯이, 련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끈질긴 전쟁도발광기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린 우리 무장력의 견결하며 압도적인 실천적군사조치들이 다시한번 확증했듯이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강적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강군의 지위에 당

당히 올라섰다.

만일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감히 건드리려 한다면 가공할 공격력, 상상할수 없는 초강력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려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행성에는 군대가 많아도 우리 군대처럼 조국보위전에서도, 국가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패배와 불가능을 모르는 백전백승의 군대는 없다. 사상과 신념, 도덕과 풍모에서도 제일이고 정규화적면모와 군사기술력에서도 제일인 최정예혁명강군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세계가 공인하는 주체조선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인것이다.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국방에서의 자위의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공화국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는 원칙이다.

오늘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민방위무력건설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자위의 성새, 금성철벽의 보루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령군술은 민방위무력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라의 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비롯하여 중요계기마다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들에서 지축을 울리며 도도히 행진해나간 로농적위군종대들은 강력한 민방위무력의 실체와 그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2019년 2월에 진행된 전국로농적위군지휘성원열성자

회의를 계기로 공화국에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이 날로 위험한 단계로 치닫고있는 엄중한 정세하에서 민방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투쟁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여 로농적위군을 비롯한 민방위무력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강화발전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더욱 완벽하게 다져지고있다.

지난 7월 평양에서는 위대한 전승 70돐을 맞으며 《무장장비전시회-2023》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생산되여 최근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있는 최신형의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통해 눈부신 비약을 이룩해가고있는 공화국의 국방공업 발전수준이 다시금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오늘날 자위의 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국위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확고히 억제, 통제할수 있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튼튼히 담보하는 자위적인 국방공업의 위력에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국방공업을 가리켜 종합적국력의 과시라고 한다.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 경제력, 발전잠재력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분야가 다름아닌 국방공업이기때문이다.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업적을 받들어갈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국방공업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식 국방공업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며 세계최강의 국가방위력목표를 련속다계단으로 층층이 돌파하고 전면적으로 완비해나가심으로써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는 력사의 대업을 이룩하시였다.

사실 그이께서 단행하신 그 길은 보통의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엄두도 못낼 험로역경의 길이였다.

하지만 그 길에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제국주의폭제를 타승하는 백승의 담보가 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 식의 절대병기들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시였다.

몸소 전략무기들의 총설계가, 제1선 전투원이 되시여 우리 식의 개발방향과 설계방안을 가르쳐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흙먼지 자욱하고 언제 어떤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새로운 전략무기개발의 험산준령을 하나하나 넘으신 만단사연을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그이께서 바치신 초인간적인 헌신과 로고가 있어 주체무기개발의 초행길에서 다발적이고 련속적인 성공의 포성이 끊임없이 울려퍼졌다.

주체탄, 절대병기!

이는 행성을 진동시키는 우리 첨단전략무기체계들의 긍지높은 이름이다.

그 성능과 위력에 있어서 뛰여난 새형의 무기들 하나하나가 다 견본모방형이 아닌 우리 식으로 개발창조된다는것 다시말하여 그 어느 나라 무기고에도 없는 주체무기들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대형방사포만 놓고봐도 더하거나 덜것도 없이 철두철미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설계되고 개발완성된 말그대로 사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무기이다.

세계에는 제노라 하는 군사강국들이 있지만 공화국처럼 첨단전략무기체계를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나라는 없다. 바로 이것이 세계를 경탄시키고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 주체조선의 강력한 국방공업의 눈부신 위용이고 조선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의 놀라운 불가항력의 위력인것이다.

강력한 힘이야말로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 의무적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여야 한다는것, 강력한 자위력이야말로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로 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국가방위력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절대적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것을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공업이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전략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의 계획적인 발전방향을 정확히 견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새세대 무장장비개발을 본격적으로 적극화해나갈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에 따라 부단히 갱신되고 새로와지며 더욱 위력해지는 우리 식의 다양하고 강력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이 련이어 태여나 세상을 놀래우고 있다.

올해 3월에 진행된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을 비롯한 자랑찬 쾌거들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넘볼수 없게, 자위의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빠진것이 없게, 부족한것이 없게 마련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배짱,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인것이다.

부정의의 세력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정의를 짓밟고 위협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강위력한 군사적공세앞에서 전률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서방의 어느한 전문가는 우리의 전술핵미싸일들이 대부분 고체연료발동기를 장착한것으로 하여 기습발사가 가능하며 발사방식도 이동식발사대차와 기차, 호수, 잠수함, 지하격납고에서의 발사 등으로 다변화되였기때문에 저들의 미싸일방어체계로는 도저히 요격하기 힘들다고 실토하였다.

적들속에서도 기습발사와 회피기동능력을 갖춘 우리

의 전술핵무기체계를 요격하는것은 정말 어렵다, 조선이 미싸일들에 재래식탄두와 전술핵탄두를 섞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다면 그에 대응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이 시각도 침략야망에 환장이 되여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에 대하여서까지 떠들면서 분별을 잃고 날뛰는자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주체조선과 감히 맞선다면 1950년대의 전쟁과는 대비할수 없는 가장 참혹한 패배를 맛보게 될것이라는것이다.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온 세계를 또다시 진감시킨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명명백백하게 각인시켜주었다.

그렇다.

조선을 당할자 그 어디에도 없으며 조선의 승리는 영원한것이다.

희세의 령장을 높이 모신 최강의 군사강국, 주체조선은 오늘에 만족함이 없이 래일에도 강하고 또 강해질것이며 자위의 무진막강한 그 위용을 더욱 만방에 떨칠것이다.

4. 일심단결의 불가항력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유럽의 한 인사는 이런 말을 남기였다.

《세계에는 부유하다고 하는 나라도 많지만 강권과 전횡앞에서는 다 굽신거리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조선만은 다르다. 그것은 령도자가 위대하고 그이를 지지하는 인민의 힘이 보통 강하지 않기때문이다. 부인할수 없는것은 이런 국가단결력이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된 일이 없는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의 실현은 고사하고 흉내낼수 있는 나라조차 현재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당한 평가이라고 본다.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 없는 위대한 혼연일체,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절대병기인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제일국력, 제일재부이다.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조선의 국위와 무진막강한 힘은 일심단결과 결합된것으로 하여 절대적이며 바로 여기에 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들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우리 국가특유의 불가항력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무기입니다.》

가장 리상적인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그 어느 시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생존력과 인민의 단합을 표방하지 않는 례가 없다. 하지만 이루 헤아릴수 없이 출몰했던 정치강령과 리념들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쇠퇴몰락과 전란의 소용돌이속에서 피의 교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어 억대의 재부와 세계《최강》의 폭제를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어느 나라도 진정한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있다.

오직 사회주의조선만이 령도자와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로 이 세상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지위를 지니고 그 자랑스러운 위상이 절대시되고 있다.

공화국의 자랑찬 발전력사는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아래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수령, 당, 대중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그 위력으로 온갖 도전과 역풍을 이겨내며 승승장구하여온 승리와 영광의 행로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탄생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로정을 위대한 단결의 서사시로 수놓아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직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호소로 전체 인민을 건국위업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각계각층 온 민족을 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고 인

민의 뭉친 힘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주체34(1945)년 10월 1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내 각계 대표들이 베푼 환영연회에서 하신 연설 《단결하여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자》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자.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단결은 해방된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 새 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3천만인민이 굳게 단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앞날을 귀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적인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설 때 우리의 성스러운 건국위업은 잘 수행되여나갈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새 조국건설뿐 아니라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진로였다.

우리 공화국을 상징하는 국호와 국기, 국장과 국가에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애국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깃들어있다. 건국의 첫삽도 수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뜨고 자주, 자립, 자위의 길도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열어온

데 우리 공화국의 독특한 개척과 번영의 력사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한평생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하시여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구현한 인민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를 펼치시여 온 사회가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단결을 이룩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매혹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특출한 령도풍모는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전대미문의 시련의 나날로 기록된 고난의 행군시기에 더욱 높이 발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보내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는 친필서한은 우리 인민과 군대가 산악같이 떨쳐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제낄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온넋을 깡그리 불태우신 장군님의 애국주의는 천만의 심장이 애국의 일념으로 고동치게 한

자양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단결의 사상, 단결의 리념, 단결의 정신이 구현되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새 민주조선건설과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제낀것을 비롯하여 자기의 력사에 자랑찬 기적과 승리의 년대기를 아로새겨올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은 영웅조선, 영웅인민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일심단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조선의 상징인 일심단결은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반석같이 다져지고 그 위력이 무한대로 배가되여 더욱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주체100(2011)년이 저물어가던 그해의 마지막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일심단결과 관련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우리는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군인들과 인민들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친 그런 훌륭한 화폭을 펼쳐놓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하시고 굳건히 다져오신 우리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는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가 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앞둔 그 시각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실 결심을 굳히신것이다.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최상의 경지에서 굳게 다지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들에서도, 우리 혁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웅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사상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일심단결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백배로 다져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인민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모신 크나큰 긍지, 무한한 행복감이였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였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로 우리의 일심단결에 관한 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오늘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향도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의해 인민의 지위가 최고로 승화되게 되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더불어 태여난 시대어들이 뚜렷이 명시해주듯이 공화국에서는 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이 우선시되고 인민의 리익이 모든 성과의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철저히 일관되고있을뿐 아니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거창한 창조와 건설이 줄기차게 진행되고있다.

인민이 바라고 념원하는것이라면 그것이 다 당정책이고 국책으로 되여 천가지, 만가지 기적과 변혁을 모두 이루어내고 인민의 고충과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사랑과 헌신의 정치경륜이 지나온 10여년세월 이 땅우에 얼마나 뜨겁게 아로새겨졌던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여난 헤아릴수 없이 많고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하나와 같이 인민을 제일로 위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보장하는것을 최중대사로 내세우고 실현시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들이다.

지금 나라의 그 어느곳에나 인민을 위한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새 거리,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사실 애로와 난관이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상황에서, 국력강화의 대업과 여러 분야의 혁신적변혁을 추진하는 긴장한 투쟁속에서 어느 한두 지역도 아니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시에 살림집건설을 진행한다는것자체가 대용단이다.

더우기 공화국에서 살림집은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것으로 하여 이것은 사실상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국풍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억만금을 아낌없이 기울여 수도와 지방에 리상거리, 리상촌들을 일떠세우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현대적인 살림집건설

을 더욱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궁궐같은 새집에 보금자리를 펴게 된 꿈만 같은 현실에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인민들 누구나가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목놓아 터치는 그 감동의 화폭들이야말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철저히 구현된 이 땅우에서만이 펼쳐질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시련은 갈수록 겹쌓이지만 이 땅에서는 인민적인 시책들이 끊임없이 실시되고있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해주고있다.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나라가 격정과 흥분으로 끓어번지였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구절구절 어려있는 육아법을 통해서도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내세우고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

이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 인민중시의 정치가 어떻게 구현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고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기신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주체106(2017)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두해전 1월 이 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신 원수님이 아니시였던가. 그러시고도 자신의 로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그이께서는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시며 정말 흐뭇하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이렇게 인민들과 병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이어져있다.

물고생이 많은 최전연섬방어대 군인들을 생각하시여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분,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리는 포구를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바다향기를 안겨주신분, 완공을 앞둔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에도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나운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지역들을 거듭 찾으시며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국의 북변땅 백두산기슭의 삼지연시로부터 최대열점지역의 섬초소, 산골군의 인민봉사기지로부터 동해의 수산사업소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자욱들마다에 새겨진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현명한 스승으로 여기시며 나라앞에 방대한 과업이 제기될수록, 정세가 엄혹할수록 언제나 인민을 먼저 찾으시고 인민과 흉금을 터놓으시며 난국을 타개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경남도의 태풍피해현장에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몸소 쓰신 공개서한의 구절구절이 삼삼히 어려온다.

수도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력량이라고, 수도당원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피해현장에 나가 투쟁하면 자연이 몰아온 파괴적인 재앙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비할바없는 거대한 힘을 얻게 된다고, 평양에서 천리행군해간 수도당원들이 현지에 도착하기만 해도 그곳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가 될것이며 시련과 난관을 함께 이겨내고 타개해나가는 속에서 전당의 단결이 뜻과 정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수도의 당원들에게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공개서한은 수도의 당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존엄사수전, 인민사수전에 일시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날과 달, 한해한해는 그대로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에 보답할 열의로 충만된 천만의 충성심이 대하가 되여 이 땅우에 위대한 강국의 시대를 열어놓는 격동의 세월이였다.

세계는 보고 들으며 느끼고있다. 남들같으면 산산이 흩어지고말았을 시련속에서 더욱 백배해지는 조선의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을.

고난속에서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거세차게 울려나오는 공장들과 곳곳마다 황금빛 물들이는 전야들,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던 피해지역들마다에 솟아난 기적의 선경마을들과 더불어 온 나라에 더욱 높이 울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돌발적인 보건위기를 90여일만에 타개한 신화적인 방역대승…

그렇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충성다해 받들어나가는 일심단결의 나라, 원수님께서 결심하시면 그 어떤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무조건 이루어내는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 그이께서 일터와 초소에 찾아오시면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그이의 품에 스스럼없이 안겨들고 떠나실 때면 차디찬 날바다에도 서슴없이 뛰여들며 따라서는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 바로 이것이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일심단결의 성새를 쌓은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천만사람 대답해도 한목소리고
천만대오 걸어가도 한걸음일세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당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아 영원하리
…

조선의 참모습을 긍지높이 구가하는 이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는 우리 인민 누구나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세상이 보란듯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떨쳐가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차고넘친다.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이 동지적사랑과 의리, 혈연적뉴대로 결합되여있으며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목격한 세상사람들은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산수적결합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한몸을 이루는 유기체적결합이라고 하면서 이런 운명공동체를 깨칠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격찬하고있다.

《첨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앞서고 국민소득을 높이는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령도자와 국민의 혼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인도 재현해낼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공화국만이 유일하게 독점한 천하유일의 재보이고 핵무기도 당해낼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어느한 정치가가 말했듯이 령도자의 두리에 수천수만의 성새, 방패를 쌓고있으며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혼연일체의 단결된 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감히 어쩔수 없는 조선고유의 국력으로 되고있다고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찬탄과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절세위인의 뜻을 높이 받들고 주체조선의 절대병기, 제일재보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새 승리를 안아오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은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앞으로 강국에로의 앞길에는 지금보다 더한 시련이 가로놓일수도 있다. 그리고 일심의 성새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도 더욱 악랄해질것이다.

그러나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는한 그 어떤 곤난도 조선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강대한 **김정은**조선은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천하제일의 강국의 국위를 만천하에 떨치며 빛을 뿌릴것이다.

*　　　*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변혁을 수놓으며 폭풍쳐 전진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수 없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가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운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75성상이 새겨주는 철리이다.

조국청사에 또 하나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환희와 격정의 년대기와 더불어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존엄은 오늘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승리의 휘황한 래일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과 우리 국가의 위상은 또 얼마나 더욱 승화될것인가.

이 행성의 누구나가 다시금 똑똑히 보고 더 깊게 느끼게 될것이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기에 세계가 어떻게 뒤흔들리든 미래의 승리를 정확히 내다보며 오직 앞으로, 곧바로만 나아가는것, 시련이 엄혹할수록 그 전진력이 보다 억세게 배가해지는것, 바로 이것이 세계정치의 중력중심에 서서 승리의 진로따라 기세충천 전진해나가는 조선의 국위이며 확고한 전략적우세라는것을.

그렇다.

위대한 조선은 더욱 강해질것이며 그 절대의 존엄과 국위도 비상히 높아질것이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초강국의 거봉에 반드시 올라서서 누리에 그 위용을 더욱 떨쳐갈것이다.

누리에 떨치는 조선의 국위

집 필 김정남
편 성 리용수
장 정 채대성 교 정 주설미

내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9월 5일
발 행 주체112(2023)년 9월 8일

ㄱ－1625ㄷ

ISBN 978-9946-31-172-2

ISBN 978-9946-31-172-2